



PEACE  
KOREA

# 협 회 소 식

2018년(1)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기독교회관 311호  
TEL:(02)3676-2007 FAX:(02)3672-1907  
[www.korinf.com](http://www.korinf.com)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배풀어 주신 은혜에 충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무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戊戌年 元日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명예위원장 정 의 화(전 국회의장)  
조직위원장 김 영 진(전 농림부장관)  
조직위원장 박 주 선(국회부의장)  
조직위원장 이 주 영(전 해양수산부장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총 재 김 성 호(전 법무부장관)  
명예 회장 이 영 훈(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대표 회장 오 정 현(사랑의교회 목사)  
이 사 장 송 기 학(잡지 발행인)  
사무 총 장 김 응 학(법학 박사)



정 의 화

김 영 진

박 주 선

이 주 영

김 성 호

이 영 훈

오 정 현

송 기 학

김 응 학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www.korinf.com



대통령님 내외께서 본 협회에 구정 인사장을 보내오셨다.



무술년 정월 희망의 첫 해가 떠올랐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성실한 삶이

대한민국의 새날을 열어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나누고 살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모두의 상식이 되는 해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삶이 나아지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게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과 행복이 가득한 설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2월 16일

대통령 **문 재 인**  
김 정 숙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2017년 주요사업 실적보고

(외교부 보고서)



사단법인우리민족교류협회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조직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기독교회관 311호  
TEL:(02)3676-2007 FAX:(02)3672-1907  
[www.korinf.com](http://www.korinf.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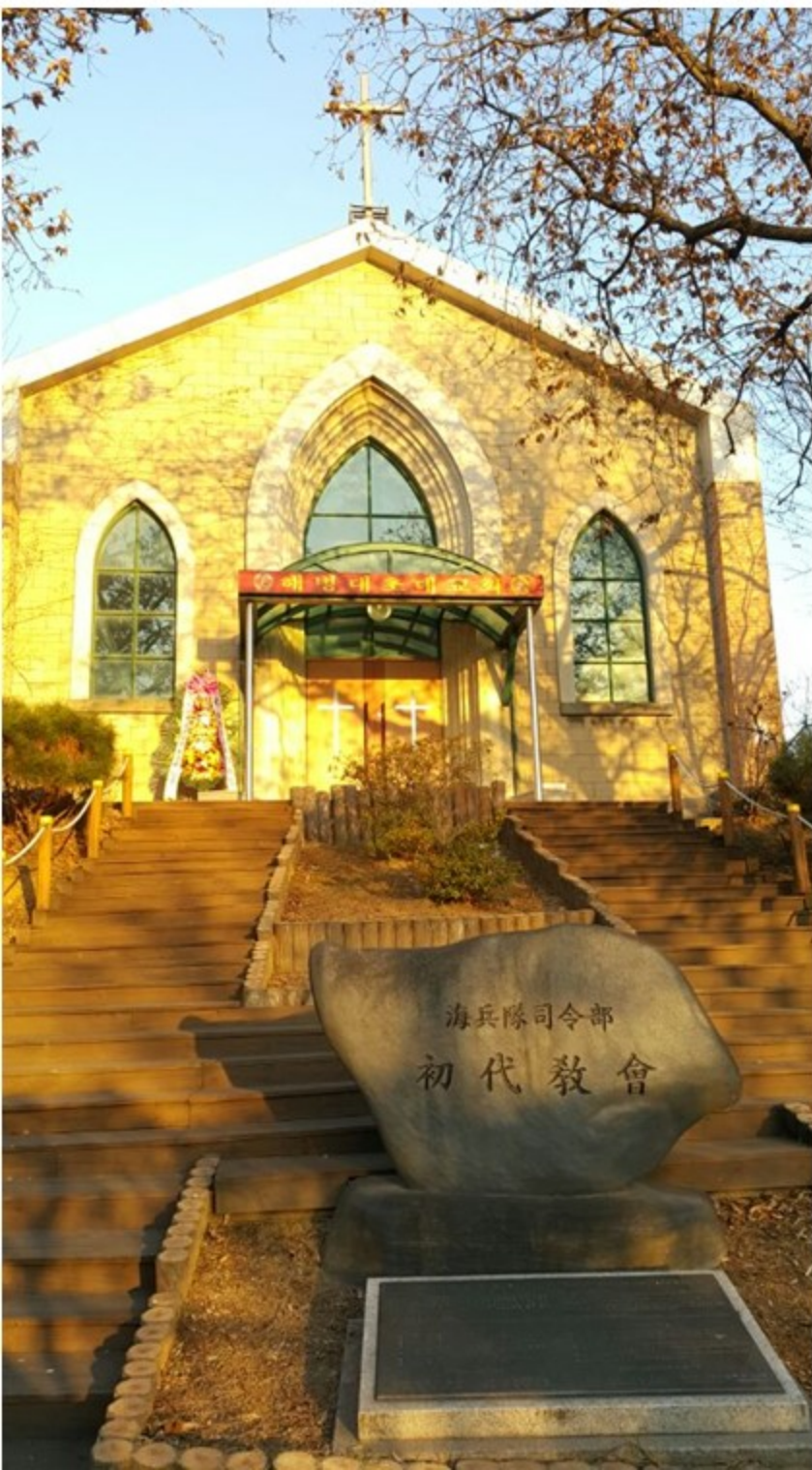
# 차 례

01. 해병초대교회 문화재등록 감사예배
02. 제6대 오정현 대표회장 취임식
03. 6.25참전용사 보훈/경로 감사행사
04. 그림으로 보는 6.25전쟁 전시회
05.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보은메달 헌정식
06. 운동주 탄생100주년 전국순회 토크 콘서트
07. 국방사절단 터키방문 참전용사 초청 보은메달 헌정식
08. 운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친필 **詩** 전시회 및 페스티벌
09.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감사 친서
10. 한반도 평화대상 및 평화메달 기획제작
11. 6.25참전 인천상륙작전 참여 해병용사 초청 행사
12. 한반도 평화통일공헌 대상 시상식
13. 한반도 평화기원 국제합창제 및 국제홍보대사 위촉식
14. 2017 유엔의 날 기념 한반도평화메달 수여식
15. 아, 북녘 땅! 잊혀진교회들 캘린더발행보급
16. 화교지도자 초청 한반도 평화메달 수여 및 교류행사
17.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착공식
18. 남북평화의 종 주조식(**鑄造式**)
19.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 위촉식
20.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전국 주요임원 초청 보은메달 헌정식
21.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 건립 착공식
22. 해병제2사단 위문행사
23. 남북평화의 종 제작완료

## 군인정신 산실 '해병대 초대교회' 문화재 됐다

### 개신교 유물 3건 문화재 등록

입력 : 2017-02-15 17:45 / 수정 : 2017-02-15 21:25



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를 포함한 개신교 유물 3건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15일 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찬송가 (UNION HYMNAL)' 1권,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1점 등 총 3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문화재 제674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1959년 해병대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된 교회 건축물이다.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용암초등학교 인근에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 구조물을 지어 교회로 사용하다 초대교회를 지었다. 해병대의 역사와 흔적이 배어 있는 장소적·공간적 가치와 더불어 군사력 원동력이 되는 신앙의 근거지로서 군중사적·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675호로 지정된 찬송가는 1908년 발행된 것으로 악보 없이 가사로만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파 연합 찬송가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자료다. 또한 서양 음악인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전통을 계승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안에 있는 모자이크 제단화는 길이 8m가 넘는 큰 규모로 성당 건축 당시 성당의 주문으로 제작됐다. 작품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훼손되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어 가치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676호로 지정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전북 군산 둔율동성당, 전남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98육군병원), 전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등 5건을 문화재로 등록한다고 예고했다. 이들 5건은 30일간의 등록 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학교 체육시설 중 건축물로는 가장 오래되고 원형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건축 조형미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1963년 체육대학 내에 무용과가 신설된 이후 줄곧 무용관으로 사용돼 왔다.

장지영 기자 jjjang@kmib.co.kr





이상훈 해병대사령관께 한반도 평화메달을 수여했다.



DMZ국민보은메달 및 한반도 평화메달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존경하는 김성호 총재님께.

봄의 기운이 한껏 열리는 우수가 지났지만 겨울이 지나감을 아쉬워 하듯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는 요즘 가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은 물론 민족문화의 계승발전과 동질성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하고 계신 총재님을 비롯한 우리민족 교류협회 임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번 평화메달을 수여하여 주심에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의 경계선이며 우리 역사에 있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DMZ의 녹슨 철조망과 6.25 전쟁 당시 사용된 탄피를 녹여 만들어진 역사적 가치를 지닌 메달이기에 더욱 귀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메달의 소중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가슴깊이 되새기며 앞으로도 사령관을 비롯한 해병대 장병 모두는 국가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 대한민국을 더욱 더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가장 강하고 정직한 해병대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영광스러운 평화메달을 수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총재님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우리민족 교류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해병증장 이 상 훈



#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제6대 오정현 대표회장 취임식



취임인사: 오정현  
(사)우리민족교류협회 대표회장



재러사: 국회의장장 채우산  
조직원회장



국러사: 전 총무장관 김덕훈  
(세계한인상공회총연합회 이사장)



총사: 상임조직위원장 남경봉  
(경기도지사)



총사: 조국위 상임고문 김신경목사  
(한·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총사: 조국위 상임고문 박희순  
(대한민국국가보훈기초회 회장)



총사: 조국위원장 이수연  
(국회의원/전 재일수산부장관)



총사: 공동 조국위원장 김상일 의원  
(국회 교직원세계연맹위원장)



제6대 오정현 대표회장 취임사와 이를 축하하는 각계인사들의 축사



## "오정현 목사, 남북통일 대역사에 크게 쓰임 받을 것"

**"기도로써 설교로써 유명하신 오정현 목사님이 대표회장을 맡은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국가조찬기도회 채의송 회장

**"25년 동안 (통일·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분단의 위기를 극복할 즈음 오정현 목사님을 대표회장으로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역사에 크게 쓰임 받을 줄 확신한다."** - 한기총 전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오정현 목사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큰 기대를 갖는다. 제10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 -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대표회장 오정현 목사님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신다. 귀하신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가 그동안 감당해 온 통일의 발걸음을 주목해야 한다."** - 김영진 전 국회의원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교계 원로와 정치인 축하 인사가 이어질 때마다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활짝 웃음을 지었다. 6월 12일 국회의사당 퀴빈홀에서 (사)우리민족교류협회(민교협)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열렸다. 오 목사는 이날 교계·정계 인사, 사랑의교회 당회원·교역자·교인 200여 명의 환대를 받으며, 민교협 제6대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1992년 설립된 민교협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민족 교류 사업 등을 해 오고 있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이 대표회장을 지냈다. 민교협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열린 행사장 분위기는 들떠 있었다. 오전 7시 10분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오 목사는 참석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행사는 예배로 시작했다. 대표 기도자로 나선 이선구 목사(사랑의살나눔운동본부)는 "주의종 오정현 목사님 취임 감사예배를 올리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예배를 받아 주시고, 남북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오정현 목사님을 축복해 달라"고 했다.



# 협회 위원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

주후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7시 30분 / 국회의사당 귀빈홀

체협의회 주관 인 우리민족협회 후원 아교육문화협력재단



오 목사는 주대패와 '평화의 종'을 증정 받았다.

신임 대표회장 오정현 목사는 "세계 선교 1위인 미국 교회와 2위인 한국교회가 손을 잡고 평화통일 사역을 감당하겠다. 또 7년 내에 평양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 기도 순서를 맡은 장로들은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 국가 안보와 평화통일 등을 위해 기도했다. 전용태 장로(민교협 법률고문)는 "밀물처럼 물려오는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의 문제가 심각하다. 순리를 거스르는 동성혼을 법제화하며 에이즈 등 여러 병폐가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처럼 빠져 가는 대한민국을 건져 달라"고 기도했다. 참석자들은 일제히 '아멘'을 외쳤다.

주대준 장로(민교협 자문위원장)는 북한 핵미사일을 완전 무력화하고, 통일을 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주 장로는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인이 하나 되고, 위정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북한 김정은 이 오판하지 않도록 통치하여 달라"고 했다.

2부 추대와 화답의 시간에는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오정현 목사) 취임 축하 말씀을 드린다. 어깨가 무거우시겠다.(웃음)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게 아닐까 싶다. 정치·세대·이념의 갈등이 심하다. 섬김·나눔·양보가 있으면 극복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가조찬기도회 채의송 회장은 "세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특별히 오정현 목사님이 대표회장을 맡았기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역사가 이뤄질 줄 믿는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국민의당)은 "오정현 목사님의 대표회장 취임을 축하한다. 교계가 앞장서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가 끝나갈 즈음 오정현 목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 목사는 "우리가 남북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눈물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식에 참석한 사랑의교회 당회원과 교역자, 교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 6.25 참전용사 보훈/경로 감사행사

2017 · 대 · 한 · 민 · 국 · 평 · 화 · 통 · 일 · 국 · 민 · 문 · 화 · 제



## 6.25 참전용사 보훈/경로 감사 행사

일시: 2017년 6월 13일(화) 오전 10:00~오후 15:00

장소: 동두천 시민회관



주최: 대한예수교 합선교회 합선교회 신학원  
천국교회(로템비전센터)

주관: 대한예수교 합선교회 합선교회  
사단법인우리민족교류협회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조위원회

후원: 동두천시, 시의회, 노인회,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해병전우회, 보병 제26사단/28사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국민일보,  
극동방송, CTS, GOOD TV







### 훈장보다 값진 메달 노병들을 울린다.

2017년 6월 12일 오전 10시, 6.25전쟁 67주년 보훈의 달을 맞아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민교협/대표회장 오정현 목사) 대한민국의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영진, 박주선, 이주영)는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접경지 지역의 참전용사들을 초청하여 보훈/경로 감사행사를 진행했다.

금번행사는 이 지역에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선총회 신학원과 천국교회 로템비전센터가 주최하고, 민교협과 합선총회가 주관하였으며, 동두천시를 비롯한 노인회, 6.25참전유공자회, 해병전우회, 육군제28사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국민일보, 극동방송, CTS, GOOD TV, 복지TV 등의 후원으로, 각계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1부 참전용사 국민보은메달 헌정식과 평화메달 수여식, 2부 축하공연 3부 오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민교협이 준비한 국민보은메달은 지난 2013년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민교협이 한국전쟁의 상징이요 현장인 DMZ 녹슨 철조망과 6.25 희생자들의 넋이 서려있는 6.25 당시에 사용했던 낡은 탄피들을 녹여 국내외 모든 동포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제작하여, 지난 2013년 미국 연방정부 한국전 정전 60주년 공식기념행사 지정메달로 인정받아 당시 오바마 미국대통령께서 사용했던 매우 뜻 깊은 메달로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국민보은메달    한반도 평화메달





참전용사 국민의례



참전용사 환호



김미정 화백의 20번째  
그림으로 보는 6.25전쟁 전시회

2017/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보훈의달/특별기획

김미정의 20번째

그림으로 보는

6.25전쟁



- 일시: 2017. 6. 22(목)~30(일)   ■장소: 미술의 거리 갤러리(국제시장)  
 ■주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   ■주관: (사)우리민족교류협회  
 ■후원: : (사)6.25진실알리기운동본부

## 6.25 전쟁의 애환이 서려있는 특별한 전시회

6.25전쟁이라는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지난 역사의 뼈아픈 앙금이 증오와 망각의 대상이 아니라, 국내외 모든 동포들이 필연적으로 감당해 가야 할 극복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지난 90년대 초부터 민족화합과 동질성 회복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사)우리민족교류협회(대표회장 오정현 목사)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영진, 박주선, 이주영)가 2017년 보훈의 달을 맞아 협회 예술위원장인 김미정 화백의 그림으로 보는 6.25전쟁 20번째 기획전이, 지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UN군이 한반도에 첫 발을 내 딛은 부산에서 열려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특별히 금번 20번째 전시회는 6.25 전쟁의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부산 국제시장 미술의 거리 갤러리에서 진행해 관람객들의 감동이 더 한층 새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본 협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반세기가 지나도록 치유하지 못한 민족상잔의 쓰라린 아픔을 극복 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해 가고자 하는 한민족의 간절한 염원을 예술을 통해 대내외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6.25의 실상을 잘못 알고 있는 기성 세대들에게 6.25에 대한 진실을 바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갈 예정이다.







#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DMZ 국민보은메달 헌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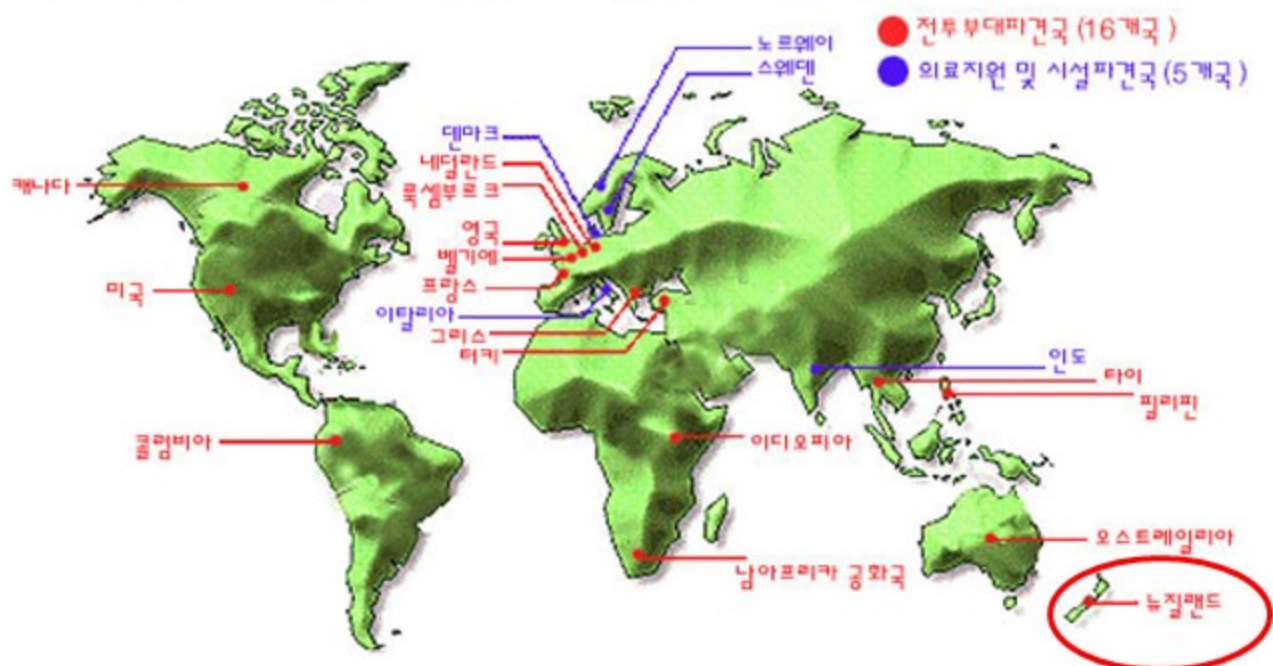
장준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께서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한국전 참전용사 대표들께,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대표회장 오정현 목사)가 한국전쟁의 상징인 DMZ 녹슨 철조망과 참전용사들의 넋이 서려 있는 6.25당시 탄피들을 녹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작한 “DMZ국민보은메달”을 헌정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달했다.

뉴질랜드는 6.25전쟁 당시 3,794명의 군사를 한국에 파병하여, 전사 23명, 부상 79명, 실종 1명 등 총 103명의 용사들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희생을 치룬 우방이다.

본 협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세계각지의 모든 참전용사들께 대한민국 국민보은메달을 헌정하고 이들이 치룬 고귀한 희생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운동을 전개해 갈 예정이다.









# 민족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전국순회 토크 콘서트 시동

2007 · 대 · 한 · 민 · 국 · 평 · 화 · 통 · 일 · 국 · 민 · 문 · 화 · 제

## 윤동주

불멸의 청년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 전국순회

# 토크콘서트

윤동주(詩) 전시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친필

일시 : 7월 2일(일) 오후 2시    장소 : 광양교회 대예배실

일제의 어둔 밤 하늘에 별빛같은 시어로  
기독교인으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저항하며 부르짖었던 애국시인 윤동주!  
넘은 값으나 윤동주 시인의 역사는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다.  
정병욱이 지켜낸 한 권의 시집, 그것은 시집이 아닌 대한민국의 얼이었다.  
윤동주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불멸의 청년시인 윤동주" 토크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사: 신윤식 작가  
국회출입기자  
한국사진선교센터 회장  
광양에일스튜디오 대표



진행: 윤태현 목사  
윤동주문학보존회 이사장  
광양교회 담임목사



진행: 유영주 아나운서  
CBS전남방송본부



"서시" 윤동주 시  
노래: 강재수 테너  
광양시합창단 지휘자



"주님고대기" 손양원목사 각사  
트럼펫 연주: 김민하목사  
손양원목사 세례사위



피아노연주: 손동연사모  
손양원목사 세례사위

주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 윤동주문학보존회    주관: (사)우리민족교류협회  
후원: 광양시 | 광양시의회 | CBS전남본부 | CTS전남지사 | 전남동부극동방송



## 민족의 동질성 회복으로 준비해 가는 통일을 위해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대표회장 오정현 목사)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영진, 박주선, 이주영) 주최로 2017년 7월 2일 전남 광양시 광양교회 대예배실에서 '운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가 정인화 국회의원과 정현복 광양시장, 이성웅 광양보건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많은 성도와 시민 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민족시인 운동주 탄생 10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외친 항일시인이자 신앙인 이었던 그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유영주 전남CBS 아나운서와 윤태현 운동주문학연구보존회 이사장의 진행으로, 고 손양원 목사의 셋째딸 부부인 김원하 목사, 손동연 사모가 특별연주를 하였고, 광양시립합창단 지휘자 강재수의 축가, 강현수 장로의 운동주 대표시 낭송에 이어, 본 우리민족교류협회 홍보위원장이자 '불멸의 청년시인 운동주'의 저자인 신윤식 작가가 협회의 특별기획사업 일환으로 오랜 기간 일본, 중국, 한국 등지를 순회하며 알게 된 운동주의 다양한 발자취를 이야기로 나누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고, 교회앞 광장에서는 광양에서 최초로 발굴된 운동주 육필 원고 전시회가 진행 되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광양시, 광양시의회, 운동주문학연구보존회, 전남CBS, 전남CTS, 극동방송 전남지사 등의 후원으로, 운동주 육필 원고가 처음 발견되었던 광양에서 시작된 금번행사는 '2017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국민문화제' 일환으로 향후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고 적절한 기회에 해외 순회행사도 진행 할 예정이다.



광양교회에서 개막 테이프 커팅





운동주 친필원고 전시회



불멸의 시인 운동주 저자 토크콘서트 진행



지역 각계 주요인사 토크콘서트 참여



# 대한민국 국방사절단 터키방문 6.25참전용사 국민보은메달 헌정식



17년째 계속되어온 한-터키 친선 국방사절단 교류행사 일환으로 지난 7월 초에 터키를 방문한 대한민국 국방부 사절단 일행이 이스탄불과 앙카라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대표들에게 본 협회가 제공한 대한민국 국민보은메달을 헌정하고, 노병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전달된 보은메달을 받아 든 노병들은 한국전쟁의 상징으로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DMZ 철조망과 한국전 당시에 사용되어 졌던 탄피를 녹여 제작한 의미 있는 메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났다면 지금이라도 달려 가겠다는 말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본 협회는 참전국을 찾아가는 국민보은행사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보은메달 헌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민족시인 탄생100주년 특별기획 윤동주 친필 詩 전시회 및 페스티벌



(사)우리민족교류협회(대표회장 오정현 목사)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는, 민족시인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친필 시집이 후배 정병욱의 생가(광양시 망덕) 마루밑 향아리에서 세상 밖으로 나 온지 72주년과 윤동주 탄생100주년을 맞아, 유고 시집이 숨겨져 있었던 광양시 망덕 해변가 이순신대교가 바라보이는 부두에서 <윤동주 詩 전시회>를 ‘2017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일환으로 개최했다.

전시회와 더불어, ‘8월의 별 헤는 밤’ 전야제로 11일(금)밤에는 EDM 공연이 진행되었고, 12일(토) 본 행사에서는 팝페라그룹 파스텔로, 킹스턴루디스카, 그리고 성악가 바리톤 전병곤 등의 특별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광양항과 이순신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페스티벌은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한여름 밤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다.

광양시는 윤동주 시인과의 인연을 지속해 가기 위하여 앞으로 윤동주시인 탄생100주년을 계기로 ‘심포지엄’, ‘추모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학관’과 ‘추모공원’을 조성해 윤동주 아젠다를 역사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본 협회도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윤동주 일대기를 화보로 편집하여 <불멸의 청년시인 윤동주>를 출판, 보급할 예정이다.



운동주 탄생100주년 기념  
8월의 별 헤는 밤 페스티벌





당시 운동주의 시집 편집을 맡아 있었던 윤동주의 방앗간 앞의 광장 모습이다.

정병욱이 지켜 낸  
윤동주의 시집,  
그것은  
시집이 아닌  
대한민국의 얼이었다.



윤동주탄생100주년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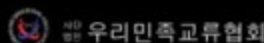
불멸의청년시인

# 윤동주

연자자 신윤식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불멸의청년시인

## 윤동주

연자자 신윤식



출판예정도서 표지시안

## 윤동주 동북아 평화 문학상 제정

본 협회에서는 지난 90년대 초부터 특별기획사업의 일환으로 민족의 영원한 청년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윤동주 관련 자료들을 한중일 3국을 넘나들며 취재해 왔다. 이에 금번 윤동주 탄생100주년을 맞아, 그 동안 국내외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윤동주 관련 제반 자료들과 그가 남긴 작품들을 총망라하여 "불멸의 청년시인 윤동주" 화보집을 오는 10월 경 기획, 출판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간절히 기원했던 윤동주 문학사상을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의 정신적 기반으로 승화 발전시켜가기 위하여, 한중일 3개국의 윤동주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적극 연계하여 국제적 규모의 <윤동주 동북아 평화 문학상>을 제정하고 매년 12월 30일 윤동주 탄생 기념일에 국제적인 기념행사와 더불어 시상식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지역 우리동포들간의 민족의 동질성 회복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지리라 확신하며, 국내외 각계각층 많은 동포들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에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친서



대한민국 육군본부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존경하는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님께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대장입니다.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그리운 이 여름,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제가 참모총장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40여 년을 몸담았던  
뚝을 떠나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 인사  
드립니다. 참모총장의 중책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 등은  
육군에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육군이 이 상황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지해 주신다면  
육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7대 참모총장으로 취임하는 김응우 대장은 탁월한 식견과  
리더십을 갖춘 훌륭한 장군입니다. 빛나는 육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육군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 8. 8.

장준규

제 46대 육군참모총장 대장 장준규 拜上

# DMZ철조망과 6.25당시 탄피를 녹여 한반도평화대상 및 평화메달 제작



1. 명칭: **한반도 평화대상 메달**
2. 용도: 한반도 평화화 통일을 위해 헌신한 국내외 주요 인사들께 수여하기 위한 메달
3. 재질: 6.25 전쟁의 상징이자 한반도 분단의 현장인 DMZ 녹슨 철조망과 6.25 참전용사들의 넋이 깃들어 있는 6.25당시에 사용된 탄피 등을 녹인 합금
4. 규격 / 색상: 직경 7cm, 골드
5. 목줄: 대한민국, 유엔, 한국전 남북양측 참전국 42개국 그리고 전후 대한민국 복구사업을 지원했던 국가 등 80개국 국기문양
6. 특징: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은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순수 민간차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해가는 범국민 통일운동 일환으로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을 제정하고 수상자들에게 국내외 모든 동포들의 들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다.







1. 명칭: **한반도 평화메달**
2. 용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한 국내외 주요 인사들께 수여하기 위한 메달
3. 재질: 6.25 전쟁의 상징이자 한반도 분단의 현장인 DMZ 녹슨 철조망과 6.25 참전용사들의 넋이 깃들어 있는 6.25당시에 사용된 탄피 등을 녹인 합금
4. 규격 / 색상: 직경 7cm, 실버
5. 목줄: 대한민국, 유엔, 한국전 남북양측 참전국 42개국 그리고 전후 대한민국 복구사업을 지원했던 국가 등 80개국 국기문양
6. 특징: 금세기 평화의 아이콘으로 인정 받고 있는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제안으로 만들어 졌고, 제1호 평화메달이 고르바초프께 수여된 이후, 무라야마 전 일본총리,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께 수여되고 있다.

한반도평화대상 및 한반도평화메달 뒷면에는 “This medal, in memory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division of Korea, is specially crafted with DMZ rusty wire, a symbol of still-unfinished war along with the ardent hope of Koreans for peac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2017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



대한민국평화통일 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전 농림부장관 김영진, 국회부의장 박주선, 전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사랑아트홀에서 2017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세계 50여 개 국에서 선발된 '2017세계평화의 여왕(Miss Global Peace Queen 2017)'들을 <대한민국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로 위촉, 파송하는 행사와 한반도 평화영원 국제합창제를 진행했다.

(사)우리민족교류협회(대표회장 오정현 목사)가 주관하는 본 행사에는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이준 전 국방부장관,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엄신형 전 한기총대표회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덕홍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성이 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사)우리민족교류협회 북방선교회 회장 서대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감사예배는 전 국방부장관 이준 장로의 간절한 기도와 오정현 목사의 설교, 엄신형 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고, 2부 2017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은 9개 분야로 나누어 정치행정분야에 정운찬(전 국무총리), 박원순(서울시장)이 수상했고, 종교분야에서는 정성진 광성교회 담임목사가, 경제산업분야에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국제분야에 주철기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교육분야에 김혁중 광주대총장, 시민사회분야에 김성이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복지의료분야에는 윤도홍 연세대학교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이상택 효산의료재단(샘병원) 설립자 겸 회장, 언론분야에 장운영 통일신문 사장, 문화봉사분야에 박재욱(주)드림에이스 회장 등이 각각 수상했다.



2017 세계 평화의 여왕 / Miss Global Peace Queen 2017  
**대한민국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 위촉식**  
 Commitment Ceremony of International Honorary Ambassador for Korean Peaceful Unification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  
 Grand Prize Awards for Contribution to Korean Peaceful Unification



◆ 일시: 2017. 10. 10. PM 6:00 ◆ 장소: 사랑아트홀(서초구 사랑의교회 B4)  
 ◆ 주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 주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 후원: 국외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시상위원장 정의화  
시상위원장 오정연

**초청의 말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우리민족교류협회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가 2017대한민국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과  
 Miss Global Peace Queen 2017 국제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하고자 아오니  
 뜻 깊은 행사를 격려하신다는 뜻에서 함께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장 김영진, 박주선, 이주영  
 (사)우리민족교류협회 총재 김성호, 대표회장 오정연, 이사장 송기락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수상자**



정치영향분야(Ⅰ) 정지영정분아(Ⅰ) 정지영정분아(Ⅱ) 정경교 회 회장 박원순  
 정지영정분아(Ⅰ) 정지영정분아(Ⅱ) 정경교 회 회장 박원순  
 정지영정분아(Ⅰ) 정지영정분아(Ⅱ) 정경교 회 회장 박원순  
 정지영정분아(Ⅰ) 정지영정분아(Ⅱ) 정경교 회 회장 박원순  
 정지영정분아(Ⅰ) 정지영정분아(Ⅱ) 정경교 회 회장 박원순  
 정지영정분아(Ⅰ) 정지영정분아(Ⅱ) 정경교 회 회장 박원순  
 정지영정분아(Ⅰ) 정지영정분아(Ⅱ) 정경교 회 회장 박원순  
 정지영정분아(Ⅰ) 정지영정분아(Ⅱ) 정경교 회 회장 박원순  
 정지영정분아(Ⅰ) 정지영정분아(Ⅱ) 정경교 회 회장 박원순  
 정지영정분아(Ⅰ) 정지영정분아(Ⅱ) 정경교 회 회장 박원순  
 정지영정분아(Ⅰ) 정지영정분아(Ⅱ) 정경교 회 회장 박원순  
 정지영정분아(Ⅰ) 정지영정분아(Ⅱ) 정경교 회 회장 박원순

**순서자**



김도 오장현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도 오장현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도 오장현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도 오장현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도 오장현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도 오장현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도 오장현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도 오장현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도 오장현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도 오장현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도 오장현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도 오장현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도 오장현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도 오장현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도 오장현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2017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한반도 평화염원 국제합창제**  
**대한민국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 위촉식**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  
 Grand Prize Awards for Contribution to Korean Peaceful Unification  
 주후 2017. 10. 10 오후 6시 사랑아트홀  
 주최 대한민국평화통일 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 주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 후원 국외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분야별 수상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2017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공로자 표창에는, 조직위원장인 박주선 국회부의장 표창에 박광재 우리민족교류협회 실무회장, 김상길 신앙계 사장, 이병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선) 총회장, 이홍섭 아카데미상블 단장, 이상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등이 수상했고, 상임조직위원장인 유성엽 국회교문위원장 표창에는 한기정 김포시 문화예술과장, 이영기 서연통상 대표이사, 허수정 MGBQ조직위원장, SDC International School, 진위고등학교 등이 수상했다.


2017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한반도 평화염원 국제합창제  
대한민국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 위촉식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

Grand Prize Awards for Contribution to Korean Peaceful Unification

주주 2017. 10. 10 오후 6시 사랑아트홀    주최 대한민국평화통일 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 주관 시민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 후원 국회교문위원회·한국문화재단·민중문화재단·한국문화재단·동북아교육문화재단





# 한반도 평화기원 국제 합창제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 위촉식

지난 2015, 민족분단 70주년을 맞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국내외적으로 적극 확산하기 위한 특별기획사업 일환으로 시작된 '세계평화의 여왕 (Miss Global Peace Queen) 선발대회'와 이들을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파송하는 행사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짐에 따라 이후 계속 되어 왔고, 금년에도 50개 국에서 참가한 가운데 국제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한 후, 이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50개국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합창제"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 위촉식

Grand Prize Awards for Contribution to Korean Peaceful Unification

주최 2017. 10. 10 오후 6시 사랑아트홀

주최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문화재단 조지워싱턴 | 후원 사단법인 우리민족교우협회 | 후원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교육문화재단



국제합창제 첫 순서로 출연한 각국 대표들이 We are the world를 합창하고 있다.





솔리데오 남성합창단

대한민국/민중/화해  
한반도 통일공헌대상 시상식  
Grand Prize Awards for Contribution to Korean Peaceful Unification  
주최 대한민국의평화통일 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 주관 새천년 위원회/고려문화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문화재단

주후 2017. 10. 10 오후 6시 사랑아트홀



아카페양상블



2017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한반도 평화염원 국제합창제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 위촉식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  
Grand Prize Awards for Contribution to Korean Peaceful Un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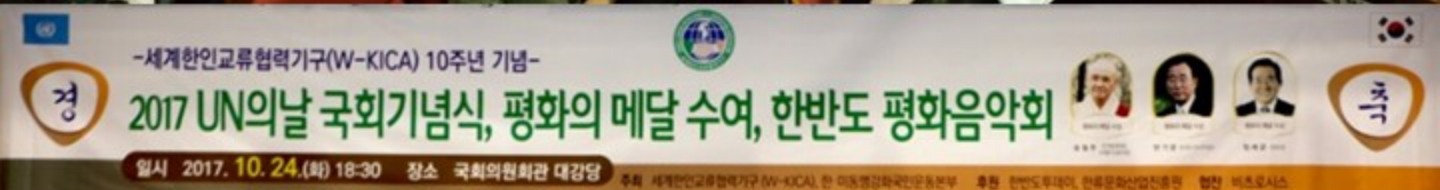
주최 2017. 10. 10 오후 6시 사랑아트홀





송월주(전,조계종 총무원장)  
반기문(제8대 유엔사무총장)  
정세균(대한민국 국회의장)

## 한반도 평화메달 수여



2017년 유엔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정세균 국회의장 등께 본 협회가 한반도 평화메달을 수여했다.



2018

6.25 정전 5주년 특별기획  
CALENDAR

북한 현직 화가들에 의해 그림으로 재현된

## 아, 북녘 땅! 잊혀진 교회들

사단법인 우리 민족 교류 협회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대한민국 평화 통일 국민 문화 제 조 직 위 원 회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Cultural Festival for Possible Unification of Korea

www.korinf.com

사단법인 우리 민족 교류 협회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대한민국 평화 통일 국민 문화 제 조 직 위 원 회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Cultural Festival for Possible Unification of Korea

www.korinf.com



# 朝鮮日報

chosun.com

“오마니 품 같던 고향 교회…” 실향민들 눈물바다

우리민족교류협회, 北교회 그림 달력 무료배포

평양 산정현교회 • 장대현교회… 한국교회사의 주요교회 망라.

우리민족교류협이 건넌자료로 北의 유명화가들이 그려



1일 서울 구기동 이북5도청에 모인 실향민들이 북한 화가들이 직접 그린 북한 고향 땅의 교회 그림을 펼쳐놓고 저마다 추억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함경북도지사, 백영철 평안북도지사, 박용옥 평안남도지사, 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진동은 목사. / 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

“이 교회 유치원을 나오고 주일학교를 다녔지요. 저 창문 너머가 강대상이 있던 곳이고, ‘ㄱ’자 한옥에 남녀가 분리된 예배당 배치까지 기억 속 고향 교회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박용옥 평안남도 도지사는 북한 화가들이 직접 그린 평양 장대현교회 그림을 들고 입을 다물줄 몰랐다. “어머니 손 잡고 동네 애들을 깨워 같이 새벽 기도에 나가면, 기도는 뒷전이고 과자집 아들이 싸온 과자를 나눠 먹느라 정신없었지요.”

1일 서울 구기동 이북5도청 평안남도 도지사실. 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이 지금은 사라진 북한 내 초기 한국 교회 그림들을 탁자 위에 펼치자,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 어르신들은 저마다 추억담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협회와 전국기독교총연합회(전기총·대표회장 엄신형)는 건물도 없어지고 기억에서도 사라져가는 복녘 교회를 그림으로 재현해 탁상 달력으로 만들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올해 2만부를 제작했고, 현재 8000부 정도가 남았다. 교회 그림은 수묵 채색화인 '조선화' 형식. 두루마기와 저고리 차림 교인들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묘사됐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인 평양 장대현교회(왼쪽)와 조만식 장로 등 애국지사 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를 배출한 평양 산정현교회의 그림. / 우리민족교류협회 제공

지난 1992년 창립된 우리민족교류협회는 재외 동포 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대북 교류 사업도 함께 진행해왔다. 송 이사장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올해 달력 제작을 포기하려 했지만, 지난달 17일 이북5도청에서 열린 '이북5도민 기도회'에서 그림을 보여드린 뒤 대량 제작을 결심했다"고 했다.

기도회가 열린 대강당은 저마다 "내 고향에서 있었던 바로 그 교회"라며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들로 '눈물바다'가 됐다. 각자 가진 자료를 내놓으며 자기 교회를 그려 달라는 부탁도 쏟아졌다.

한국 교회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 교회들을 골라 담은 만큼, 그림 속 교회마다 담긴 사연도 절절하다. 평양 산정현교회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순교한 주기철(1897~1944) 목사가 담임했던 한국 개신교회의 대표적 순교 성지. "끝까지 저항한 기독교 반동 근거지"라는 이유로 지금은 건물을 무너뜨린 자리에 땅을 파 인공 호수를 조성했다고 한다.

길선주(1869~1935) 목사의 '나도 죄인이오' 고백을 시작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장대현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 초기 한국 교회 인재의 산실 평양장로회신학교 등의 모습도 오롯이 담겨 있다.

공산 독재국가 북한의 화가들이 십자가 선명한 교회 그림을 직접 그린 것도 기적 같은 일이다.

송 이사장은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 개신교계가 대규모로 북한을 방문했던 2007년 북한 당국의 협조로 만수대창작사가 북한 내 유명 화가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해 성사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북에서 새를 제일 잘 그린다는 리창옥, 생동감 있는 소나무 묘사로 유명한 리명국 등 교회 그림 작업에 참여한 4명 모두 북한에서 인지도가 높은 유명 화가이다. 송 이사장은 "사진 등 자료를 직접 건넸고, 화가들에게 물감과 화구 등을 지원하며 그림을 받았다"고 했다.

사라진 복녘 교회 모습을 남겨 놓는 것은 한국 교회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평가다. 전기총 엄신형 목사는 "지난 2007년 평양 방문 때 북한 관계자로부터 종교법에 '현존 건물이나 토지가 과거 종교와 관련된 것임이 증명되거나 확인될 경우 관련 종교 기관에 돌려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훗날 한국 교회가 북한 지역 교회 재건 사업을 진행할 때 북한 당국 스스로 과거 교회 존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공인 받는 사전 작업인 셈이다.

협회는 한국 작가들이 북녘 교회를 그린 2005년 달력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북한 작가들이 그린 교회 그림으로 3000부 안팎 소량 달력을 제작해왔다. 송 이사장은 "소장 중인 사진과 그림 자료 900여점, 북한 화가 10여명이 그린 조선화·유화 등 북녘 교회 그림 40여점을 모아 올 10월에 '북녘 땅 우리 교회' 전시회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태훈 기자 libra@chosun.com

### 평양 교회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태익 컬럼[만물상])

"이 나라는 오랫동안 잠자다 이제 극단적 보수주의에서 깨어났다. 교회는 후퇴 없이 성장하고 있다." 청일전쟁이 끝난 뒤 평양에서 활동하던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새뮤얼 A 마핏(마포삼열·馬布三悅)은 본부에 그렇게 보고했다. 1893년 평양 서문 밖 초가에서 선교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평안도·황해도 장로교 신도는 5950명으로 전국 장로교인 7500명의 80%를 차지했다. 장로교뿐 아니라 1938년 전국 기독교인 60만명 중에서도 서북 지역 신도가 75%나 됐다.

서북이 한국 기독교의 중심지가 된 이유로 새로운 것에 개방적인 서북인의 진취성을 든다. 다음에 꼽히는 것이 조선왕조의 뿌리 깊은 서북 무대점이다.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1만4000명 가운데 평안도 정주 출신은 277명을 차지했다. 전국 통틀어 서울 다음 가는 2위로, 유림의 본고장 안동보다도 많은 급제자를 냈다. 그러나 서북 출신은 승진이 3품, 4품, 그것도 한직(閑職)에 그치고 핵심 고위 관료로 올라서지 못했다. 자연히 서북인들은 반(反)봉건 의식을 키우며 유교 이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상을 그리게 됐다.



서북 지방 교회는 '최초'의 훈장을 단 곳이 많다. 마핏 목사가 세운 평양 장로회신학교는 한국 최초 신학교다. 그가 세운 평양 장대현교회에선 새벽 기도회가 처음 시작됐다. 장로회신학교 1회 졸업생인 길선주 목사는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다. 그는 1907년 장대현교회에서 역사적인 '평양 대부흥회'를 이끌었다. 평양 남산현교회에서는 체계적인 주일학교가 시작됐다.

광복 후 공산 세력이 들어서자 교회는 먼저 탄압 대상이 됐다. 김일성에게 협조하기를 거부하다 희생된 조만식 선생은 평양 산정현교회 장로였다. 교회 신자 중엔 어린이도 많았다. 공산당은 주일날 소풍이나 과외활동을 시키거나 교회 다니는 아이는 반장을 못 하게 하는 유치한 방해도 서슴지 않았다.

재외 동포와 대북 교류 사업을 벌여온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사라져버린 북한의 초기 교회 모습을 재현한 그림으로 달력을 만들었다. 달력을 받아 본 실향민들이 눈물바다를 이뤘다고 한다. 북한 공산 정권을 피해 월남한 실향민 중에는 기독교 신자가 특히 많다. 워낙 신앙이 생활화됐던 지역이니 어릴 적 다녔던 교회가 어머니 품같이 그림기도 할 것이다. 고향에 달려가고픈 이들의 꿈은 언제 이루어 지려나.



# 아시아지역 화교지도자 초청 한반도 평화메달 수여식 및 교류행사



## 韓半島和平獎章頒獎儀式 Award ceremony of Peace Korea Medal



### 受獎人

台灣：吳淑貞・盧宜鈴・林秀帆

中國大陸：張金火

香港：林曼霞

新加坡：林興發・林瓊利

馬來西亞：林順平・林家儀

印度尼西亞：林文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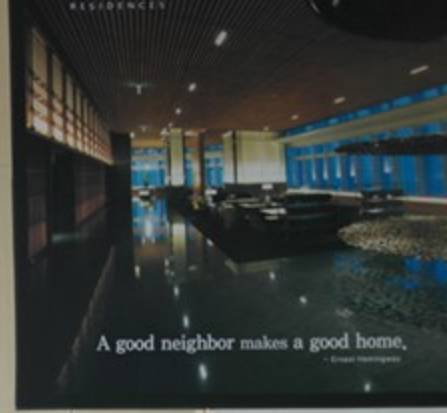
▣ 日時：2017. 11. 11. ▣ 場所：樂天世界大廈31樓sky31禮堂 (Lotte World Tower 31F sky31 auditorium)

▣ 主催：大韓民國和平統一國民文化祭 組織委員會 ▣ 主管：社團法人 友利民族交流協會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대표회장 오정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학)가 주관하는 한반도평화메달 수여식이 2017.11.11 정오,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 Auditorium에서 중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의 아시아권 내에서 활동중인 中華和平發展聯盟 지도자 초청 한반도평화메달 수여식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본 협회 상임고문이신 장상 전 총리서리,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께서 참석하시어 협회를 대표하여 한반도평화메달을 수여하셨고, 오찬과 더불어 향후 쌍방이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 평화발전과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정착, 그리고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한반도 평화메달을 수여 받는 10명(개인별 약력 별첨)의 中華和平發展聯盟 소속 화교지도자들은 오랜 기간 소속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인 평화활동과 화교상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아시아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온 저명인사들로, 향후 이들과 더불어 남북한 평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시아의 효율적인 선교활동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아시아권 주요지역 中華和平發展聯盟 지도자일행이 방한하여 본 협회로부터 한반도평화메달을 수여 받고, 향후 아시아지역 평화발전을 위한 사업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사진 앞줄 중앙, 본 협회 상임고문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 좌측 본 협회 송기학 이사장, 우측 中華和平發展聯盟 林竹松 主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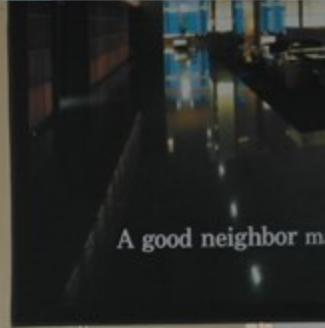


사진 좌로부터, (주)구수방 황성익 회장, 中華和平發展聯盟 林順平 名譽主席, 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 우리민족교류협회 상임고문 장상 전 총리서리, 우리민족교류협회 상임고문 황우여 전 사회교육부총리, 中華和平發展聯盟 林竹松 主席 장영자 회장,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강성재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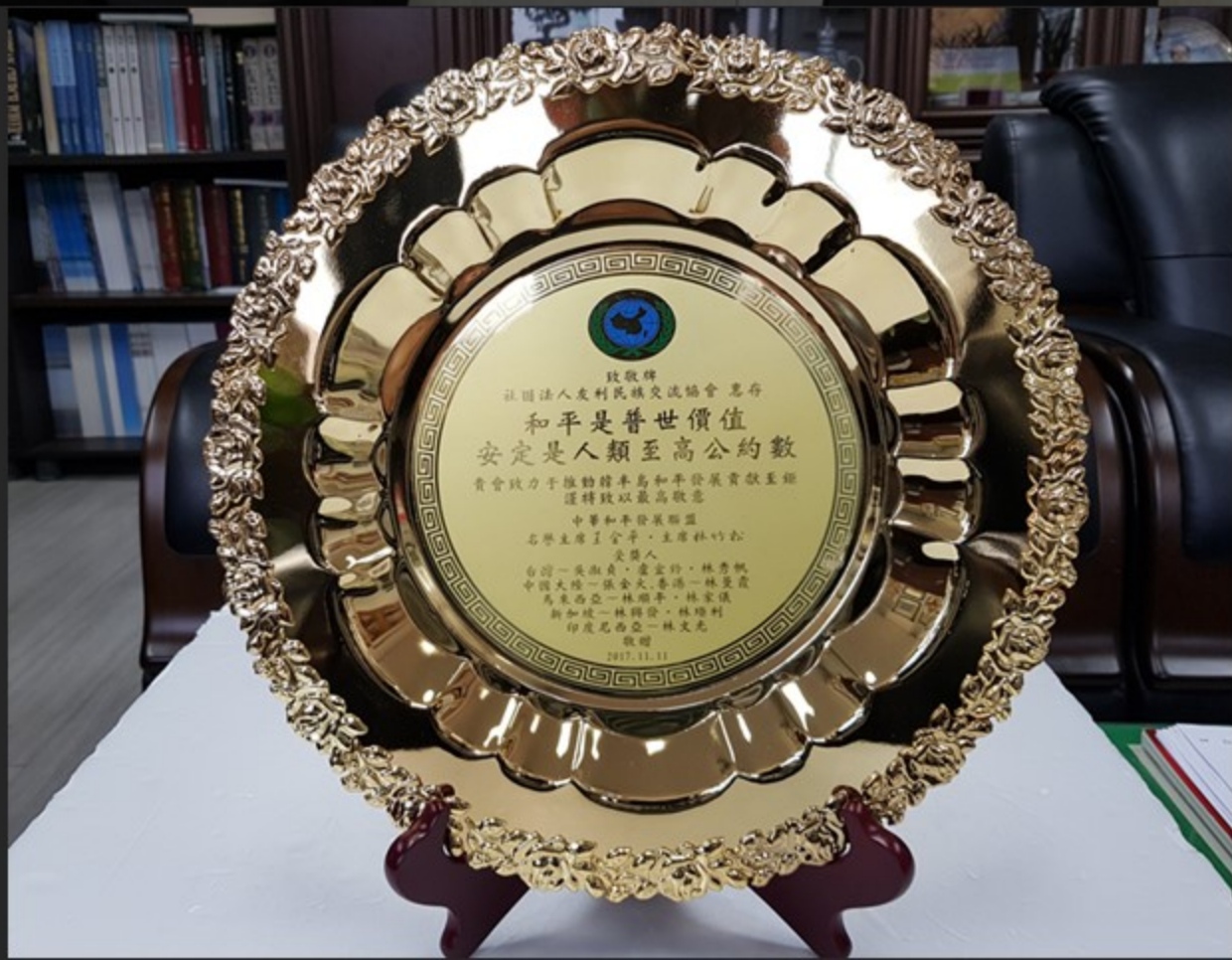
좌로부터, 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 상임고문 장상 전 총리서리, 상임고문 황우여 전 사회교육부총리께서 본 협회를 대표하여 한반도 평화 메달을 수여했다.



좌로부터, 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 상임고문 장상 전 총리서리, 中華和平發展聯盟 名譽副主席 林興發 遠達集團董事主席, 상임고문 황우여 전 사회교육부총리, 中華和平發展聯盟 林竹松 主席)



中華和平發展聯盟 林竹松 主席께서 본 협회 송기학 이사장께 감사패를 증정함





공사기간 | 2016. 11 ~ 2018. 12      면적 | 49,500 m<sup>2</sup>  
발주 | 김포시      설계 | 靑露齋 JROJE architects & planners



1. 전망대 2. 기념마당 3. 전망대 오름길 4. 평화의종  
5. 주차장 6. 전시관 7. 평화광장 8. 해병대전적비(기존)

##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착공

"개성까지 들릴 '남북 평화의 종' 만들 것"...

경기도 김포시(시장 유영록)와 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학)는 21일 오후 김포 월곶면 조강리에 위치한 애기봉 전망대에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록 김포시장,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이승도 해병대 2사단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국·시비 290억원을 투입해 9500m<sup>2</sup> 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안보교육실을 갖춘 전망대와 지상 영상관, 전시실이 있는 평화생태 전시관,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우리민족교류협회는 다음달 11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성중사에서 '남북 평화의 종' 주조식을 갖는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부지에 설치될 '남북 평화의 종'은 비무장지대(DMZ) 녹슨 철 조망과 탄피 등으로 만든다. 김 전 장관은 "보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듣고, 개성까지 들릴 수 있도록 종탑의 높이를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 22일 애기봉에서 남북평화의 종 착공식과 국군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한 성탄 감사예배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발 165m 애기봉 정상에 등탑을 세워 처음 불을 밝힌 것은 1954년이다. 2014년 10월 철거된 등탑은 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웠다.

애기봉 등탑의 불빛은 20~30km 떨어진 개성시내에서도 보인다. 이 때문에 북한은 "괴뢰들의 반공화국 심리전"이라며 비난해 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대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착공식



사진 우측으로부터, 유영록 김포시장, 이승도 해병제2사단장, 김영진 조직위원장, 송기학 이사장, 시공 및 감리회사 대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1-9 일대의 애기봉 전망대는 한반도 접경지역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북녘 땅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이곳에서 평화의 종이 타종 될 경우 북녘 땅 깊숙이 개성시내까지 그 종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접경지역이라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곳 49,500㎡(연면적 6,339㎡ / 지하1층 지상3층) 부지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김포시가 26,870백만원(국비 11,810백만원, 지방비 14,272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망타워를 비롯해 평화광장, 생태전시관 등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2017년,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난 21일 오후2시30분에 애기봉 정상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협회는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30분에 애기봉 전망대에서 2017 성탄 축하예배 겸 남북평화의 종 착공 감사예배를 진행하고, 정오에 해병대 제2사단사령부를 방문하여 2017 성탄위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반도 평화통일의 랜드마크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 주조식(鑄造式)



사진 우측으로부터, 양승천 협회 사무국장, 주영수 선교위원장, 원종문 탈북동포지원연합 이사장, 한재숙 목사, 김영진 조직위원장, 유영록 김포시장, 석만청 대한불교 대각종 종정, 송기학 이사장, 라석환 장로, 신복식 회장 미암사 스님

##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세울 2m짜리 '평화의 종' 주조식 비무장지대 녹슨 철조망과 탄피 녹여 제작 "평화의 상징으로"

경기 김포시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건립될 '세계평화의 종' 주조식이 11일 오후 충북 진천군 성중사 주조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세계평화의 종은 한강하구와 북녘 일대를 조망하는 월곶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추진한다. 디자인은 영국의 세계적 산업디자이너이자 1982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감독 아널드 슈워츠먼(81)경이 맡았다.

56년간 범종 제작의 외길을 걷고 있는 원광식(75) 주철장이 제작한다. 지난해 에밀레종을 복원해 실제와 99%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장인이다. 이 평화의 종은 한국전쟁의 상흔이 서려 있는 비무장지대의 녹슨 철조망과 탄피들을 녹여 만든다. 매년 정전기념일 등에 공식 타종할 예정이다.

평화의 종은 높이 2m, 하단 둘레 163cm 규모로, 제작비 18억원이 투입된다. 서체는 훈민정음체를 집자해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살리고, 당좌에 한국전쟁 참전 16개국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형상을 조각한다. 좌우 비천상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의 기원을 담아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비둘기의 모습을 새긴다.

유영록 시장은 "수도권 최북단 한강하구 애기봉에 남북평화의 종 건립을 추진한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 송기학 이사장님과 원광식 주철장께 감사드린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평화명소가 되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600도의 고온에서 쇳물이 끓고 있는 용광로



남북평화의 종 형틀에 쇳물이 부어지고 있다.





우리민족교류협회 관자들과 김포시 관계자 기념 촬영



주조식 기념 촬영



우리민족교류협회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 문화제  
국제 홍보 대사 위촉식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 위촉식  
2017 Miss Supranational Winner, Miss Jenny Kim (사진 우측)  
2017 Mr. Supranational Winner, Mr. Gabriel Jose Correa (사진 좌측)

우리민족교류협회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 문화제  
국제 홍보 대사 위촉식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 2017 Miss Supranational Winner, Miss Jenny Kim (사진 우측)  
2017 Mr. Supranational Winner, Mr. Gabriel Jose Correa(사진 좌측)은 향후 평창올림픽  
공식 서포터즈로도 활동하게 된다.

## [서울경제TV] 김제니 “한국의 뷰티 알리는 데에 힘쓸 것”

2017 미스 슈프라내셔널에 김제니... 한국 최초 미스 슈프라내셔널,  
세계 3대 미인대회 “혼자 아닌 모두의 도움·지원에 힘입어 우승”

**[앵커]**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미인대회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세계 3대 미인대회 중 하나인 ‘미스 수프라내셔널’ 대회에서 우승한 김제니씨인데요. 김제니씨가 오늘 우승 기념 회견을 열고 한국의 뷰티에 대해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지시간 1일 폴란드에서 열린 2017 미스 수프라내셔널 대회에서 김제니(24)씨가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미스 수프라내셔널’ 대회는 ‘미스유니버스’, ‘미스월드’와 더불어 세계3대 미인대회로 꼽힙니다. 김제니씨는 지난 1월 한국 대표로 출전한 제 65회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에서는 우정상에 그쳤지만 꾸준한 준비와 노력 끝에 미스 수프라내셔널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한국인이 주요 국제 미인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제니씨는 오늘 우승 기념 회견을 통해 “(미스)콜롬비아와 경쟁할 때 우승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혼자가 아니라 모든 분의 도움과 지원에 힘입어 우승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제니 / 미스 수프라내셔널 “여러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뷰티 쪽으로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가 되어 많이 응원하고 알리고 싶습니다”

회견에는 가브리엘 코레아 2017 미스터 수프라내셔널과 대회 주관사인 PJP의 박정아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실제 대회에서 입었던 전통의상을 선보인 김제니씨는 우리민족교류협회로부터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 문화제 홍보 대사’로도 위촉됐습니다.

김제니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미국 유학을 통해 석·박사 학위를 따낼 계획입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김동욱 / 영상편집 김지현]



우리민족교류협회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 문화제  
국제 홍보 대사 위촉식

2017  
미스  
수프라 내셔널  
우승  
김제니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제 홍보 대사 위촉식 기념 촬영

2017 Miss Supranational Winner, Miss Jenny Kim (사진 우측 두번째)

2017 Mr. Supranational Winner, Mr. Gabriel Jose Correa (사진 좌측 두번째)

국제 미스 수프라 내셔널 조직위원장 Gerhard Parzutka von Lipinski (사진 우측 첫번째)

미스 수프라 내셔널 한국회장 박정아 (사진 좌측 첫번째), 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 (사진 중앙)

2017 미스 수프라 내셔널 우승  
김제니 귀국환영 기자회견



12.12.2017





#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DMZ 국민보은메달 헌정식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는 2001. 5. 16일 사단법인 6.25 참전전우기념사업회로 시작되어, 2009. 3. 7일 법률 제9462호(2009. 2. 6일 공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에 의거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로 설립된 법적 단체이다.

이에 본 협회는 오늘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이들의 숭고한 피 흘림의 희생을 발판으로 이룩한 성과이기에 오는 2018년 정전 65주년에 앞서 먼저 중앙회 박희모 회장(예비역 육군 중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회 주요임원 들께(39명) 본 협회가 한국전쟁의 상징인 DMZ 철조망과 6.25 전쟁 희생 참전용사들의 넋이 서려있는 전쟁당시 탄피 등을 녹여 제작한 국민보은메달을 헌정하고, 이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향후 이들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보은활동에 적극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2018년 정전 65주년을 맞아 순차적인 계획에 따라 뜻을 같이하는 기업체 및 종교기관 등과 협력하여 국내 생존 참전용사들께도 DMZ 국민보은메달을 헌정할 예정이다.





사진 우측부터, 박희모 중앙회 회장,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 김영진 조직위원장



12.15.2017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전국지회 회장단



# 한반도 평화통일의 랜드마크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 착공식



## 서부 전선 최전방에 들어서는 평화의 종

CBS노컷뉴스 이승규 기자 2017-12-22 22:12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96870?csidx89a7608138ec3a8b270597a9a0f6396>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애기봉은 서부전선 최전방으로, 북한땅이 훤히 내다보이는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1954년부터 성탄 트리 불을 밝혀 왔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자는 의미였지만, 그 동안 애기봉 성탄트리는 갈등의 상징이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트리를 설치하려는 보수교계와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진보교계의 갈등이 연례행사처럼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북녘 땅에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자는 의미였지만, 개성에서도 보일 만큼 밝은 성탄트리는 의도와 다르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 2015년부터는 양측이 합의해 평화기도회를 개최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분쟁의 씨앗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설 남북 평화의 종으로 인해 더 이상 김포 애기봉에서 성탄트리를 둘러싼 갈등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기봉에 조성되는 평화생태공원에 자리하게 될 남북 평화의 종은 높이가 2미터에 달하고, 제작비만 1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김포시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지난 달 김포시가 국비와 시비 등 모두 269억 원을 확보하면서 오는 2019년 말까지 전망대와 안보 전시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북 평화의 종 건립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남북 평화의 종 건립 기금 3억 원을 쾌척하면서 사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아놀드 슈어츠만이 제작할 남북 평화의 종은 한국 전쟁 당시 사용했던 탄피와 지난 2014년 철거했던 애기봉 등탑 등을 함께 녹여 만들 계획이다.





사진 우측부터,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 정상덕 해병2사단 군종참모, 이정우 국방부 군종정책실장, 이승도 해병2사단장, 유영록 김포시장, 김영진 조직위원장,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엄신형 추진위원장, 김명환 제24대 해병대사령관, 박환인 전 해병대 부사령관, 김상길 신앙계 사장, 김기홍 해병선교회 회장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께서 착공식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남북평화의 종 건립기금 3억원을 전달함(사진 우측부터,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엄신형 추진위원장)



우리민족교류협회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특별 감사패와 한반도 평화메달을 전달함 (사진 우측부터,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영진 조직위원장)







# 해병 제2사단 위문 및 성탄축하예배 위문금 10,000,000원 전달



이승도 해병 제2사단장께 한반도 평화메달을 수여함  
(우측부터 송기학 이사장, 이승도 사단장, 김영진 조직위원장)

## 대한민국해병대 제2사단



제2해병사단(第二海兵海兵師團, 영어: The 2nd Marine Division) 청룡(靑龍), 정식명칭 해병대 제2사단은 경기도 김포시에 사단본부를 두고 있는 대한

민국 해병대의 두 번째 사단이다. 예하부대는 인천, 김포, 강화도 부속 도서에 주둔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을 위해 1965년 9월 20일에 여단으로 창설되어, 같은 해 10월 9일부터 1972년 2월 24일까지 참전하였다.

1981년 4월 16일 사단으로 증편하였다. 1987년 해병대 사령부가 재 창설됨과 동시에 해군 제2해병사단에서 해병대 제2사단으로 공식 개명되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 셋째 손동연 사모(피아노 연주)와 사위 김원하 목사께서 (트럼펫 연주)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주님 고대가를 특별연주로 함으로 장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 특별연주 주님 고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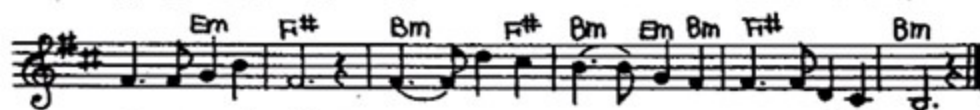
손양원 작사



낮 - 에나	밤 - 에나	눈 물머금	고	내 - 주님
고 적하고	솔 - 솔한	빈 들판에	서	회 - 미한
먼 - 하늘이	상한	구름만떠	도	행 - 여나
내 - 주님	자 - 비한	손을붙잡	고	면 - 류관
신 부되는	교 - 회가	힘 웃을입	고	기 름준비
천 - 년을	하루같이	기 다린 주	님	내 - 영혼



오 시기만	고대합니	다	가 - 실때	다시오마
등 - 불만	밝히어	놓고	오 실	즐만
내 - 주님	오시는	가해	머 리	들고
벗어	들고	찬송부르	면	주님
다해	놓고	기다리오	니	도적
당 하는	것	볼 수	없어	서
			이	시간
			도	기
			다	리
			고	



하 신예수	님	오 - 주여	언 - 제나	오 시렵니	까
기 다리오	니	오 - 주여	언 - 제나	오 시렵니	까
바 라보	는	맘	오 - 주여	언 - 제나	오 시렵니
가 고	싶어	요	오 - 주여	언 - 제나	오 시렵니
하 신예수	님	오 - 주여	언 - 제나	오 시렵니	까
계 신내	주님	오 - 주여	이	시간	에
			오	시	읍
			소	서	



손양원 목사  
(1902~1950)

손양원牧사는, 1938년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신사참배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음으로 1940년 체포되어, 광복이 되어야 출옥하였다.

1946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1948년 10월 여수 순천반란사건 당시 두 아들이 공산분자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당시 계엄군에 의하여 살해자가 체포되어 처형되려는 순간에 구명운동을 전개하여 안재선이라는 살해범을 살려내 양아들로 삼았으나 곧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산군에 체포되어 미평에서 그들의 총탄을 맞고 순교하였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일대기가 출판되어 영어와 독어 등으로 번역되었고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 북녘 땅까지 울려 퍼질 남북평화의 종 제작 완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한반도의 그 분단의 상징인 DMZ 녹슨 철조망과 6.25전쟁 참전 희생자들의 넋이 서려있는 전쟁 당시에 사용되었던 탄피, 그리고 지난 40여 년간 애기봉 정상에서 북녘 땅까지 평화의 불빛을 비추어 오다 시설물 노후화로 철거되었던 성탄트리 십자가 점등 탑 등을 녹여, 순수민간단체인 (사)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학 장로, 대표회장 오정현 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를 비롯한 국내외 각계각층의 협력을 받아,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애기봉 전망대 정상에서 건립할 예정인 “남북평화의 종”이 세계적인 그래픽디자이너와 세계 최고의 범종제작 명장이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환상적인 협업 하에 추진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국내 범종제작업체로서는 최대규모인 충북 진천 성중사에서 김포시장을 비롯한 (사)우리민족교류협회 관계자들과 사회각계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 주조식(첫물을 형틀에 붓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열렸다.

남북 평화의 종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아놀드 슈왈츠만(81) 경이 디자인한 작품으로 9m 높이의 UN문자를 형상화 한 청동구조물에 2m 높이의 대형 범종이 설치되는 기념비이다.

84LA올림픽 디자인 감독과 88서울올림픽 디자인 자문역을 역임한 아놀드 슈왈츠만 경은, 지난 2013년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조형물로 용산 전쟁기념관에 건립된 한국평화의 종과, 금번 애기봉 전망대 정상에 건립될 예정인 남북평화의 종을 자신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디자인하여,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날까지 매년 평화의 종 타종식을 진행해 달라는 조건으로,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를 통해 디자인을 재능기부 함으로, 2013년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번째 한국평화종이 전쟁기념관에 건립되었고, 금번에 두 번째 평화의 종이 전정65주년을 맞아 북녘 땅이 내려다보이는 애기봉 전망대 정상에 “남북평화의 종”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범종 제작가로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명장과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된 장인 원광식(75) 성중사 대표가 조선시대 이후 그 맥이 단절되었던 것을 10여 년간의 독자적인 연구 끝에 지난 1997년 재현에 성공한 신비의 밀랍주조공법(특허2006호)에 자신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한반도 평화통일의 랜드마크로 애기봉 정상에 건립되는 남북평화의 종은 그 종소리가 북한 개성 시내까지 은은하게 들리고, 음파탐지기로는 송악산을 때리고 되돌아 오는 메아리가 애기봉에서 측정될 수 있는 규모로 제작되었기에, 매년 말 보신각 제야의 종과 동시 타종될 때 국내외적인 특별한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평화문화 1번지 김포시의 상징물이 될 전망이다.

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은, 향후 범국민적인 통일운동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감대를 좀더 적극적으로 확산해 가고자 오는 2023년 한국전쟁 정전70주년까지 이미 한국에 세워진 2개의 평화의 종을 시작으로 참전 21개국 수도와 유엔본부 앞 등지에 세계평화의 종을 건립하고, 마지막 평화의 종은 통일이 되는 날, 평양에 건립한다는 목표 하에 국내외 각계각층 동포들과 더불어 지속적인 평화의 종 건립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는 중장기적인 포부를 피력했다.





남북평화의 종 형틀에 쇳물을 부었다.



형틀에서 나온 남북평화의 종



## 전면부위 예상도



용뉴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4마리가 사방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으로 장식함

유두는 심장생으로 장식된 곳에  
무궁화 문양으로 조각함

<평화의 종> 서체는 훈민정음  
원목영인본에서 훈민정음체를  
집자(集字)하여 우리문화의  
독창성을 살렸음

후면에는 한글과 영문의  
평화의 종 헌정문을 기록함

좌우 비천상은 평화종일을  
영원하는 한민족의 기원을 담아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비둘기  
모습을 조각함

당좌는 참전16개국이 한국을  
지키는 형상으로 본회  
로고를 조각함

아대는 한국전 참전국 고유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은  
모습을 조각함

## 후면부위 예상도



DMZ 중부전선  
녹슬은 철조망

6.25전쟁 희생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수집된 탄피

40년이 넘도록  
애기봉 정상에서  
평화의 불 빛을 밝혀온  
성탄트리 점등 철탑







## 남북평화의 종 부위별 조형물 위치도 (안)



평화공헌비



협찬기업 로고탑



참여자 기념명판



6.25전쟁 기록화 조각 판



참전국 국기계양대



평화통일 기원 리본 길이 웬스



참전 21개국 주요인사 및 국내외 평화관련 저명인사 메시지와 친필 서명판



남북평화의 종 타임캡슐 매립

남북평화의 종 = + + + +

남북평화의 종: 반세기여 년 동안 예기봉 정상에서 북녘 땅에 평화의 밝은 빛을 비춰 오다 지난 2014년 시설물 노후화로 철거되었던 성탄트리 십자가 정승 탑과 6.25전쟁 희생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수거된 탄피, 그리고 민족분단의 상징인 DMZ 북은 철조망 등을 녹여 제작되었다.